

31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

김해성·임근재·진허 등 14명 참여



한 가족이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은 동화적이며 한상적이다. 가족은 행복하다. 하늘을 나는 것 같기도 한 적한 공간을 나는 것 같기도 하다. 김해성 화가의 작품은 어떤 풍경이든 동심이 투영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별과 꽃, 하트 이미지는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어른들에게 유년 시절의 꿈을 상기시킨다.

임근재 화가의 그림은 몽고의 어느 초원을 옮겨온 듯하다. 한편으로 보랏빛 나팔꽃과 수수한 들꽃은 남도의 어느 들녘을 묘사한 것 같기도 하다. 푸른 풀밭을 거니는 야생마는 보는 이에게 '쉽'을 떠올리게 한다. 초점화된 말에선 경주마나 야생마가 아닌 사골에서 볼 수 있는 말의 이미지가 배어나온다. 풀밭, 나팔꽃, 들꽃, 파란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말은 주인공이면서도 배경으로 자리한다.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맞아 말을 모티브로 한 작품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ACC디자인호텔 갤러리에서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馬·병오새해'전이 그것.

올해는 육십 간의지 43번째인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 (적토마·赤馬)다. 천간(天干)인 병(丙)은 붉은빛을, 지지(地支)인 오(午)는 말을 뜻한다.

전시실에서 만나는 말은 고전적인 이미지에서부터 동화적 감성이 투영된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이번 전시는 김영태, 김해성, 문정호, 문희진, 문형선, 양나희, 윤해옥, 이승기, 임근재, 전현숙, 정정임, 진허, 최요안, 한동훈 작가 등 14명이 참여했다. 저마다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일궈온 작가들답게 출품된 말 그림은 작가들 고유의 화풍을 담았다.

말은 예로부터 하늘과 땅, 인간을 잇는 동물로 인식



문희진 작



김해성 작

## 병오년 새해 ‘말 달리자’

돼왔다. 화면 속 말들은 하늘, 땅, 인간과 자유롭게 연계돼 있는데 인간과 어울리거나, 하늘을 날거나, 질주하는 모습으로 묘사됐다.

문정호의 말은 도약과 상승의 움직임이 읽힌다. 황혼의 시간, 앞발을 치켜들고 어딘가로 내달리려는 모습은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홀로 질주하는 말의 이미지를 초점화한 이승기의 그림도 진취적이며 밝은 기운이 넘친다.

이에 반해 전현숙의 말은 '사이한' 모습이 특징이다. 작은 왕관을 쓰고 등에 작은 화분을 실은 말은 온통 불그스름하다.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어쩌면 그림 속에서 막 튀어나온 말을 표현한 것 같다.

붉은 황도발이 아스라이 펼쳐진 들녘에서 때를 지어

노니는 말들을 그린 김영태의 작품은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 붉은 말의 조화는 배경을 통해 말을 보게 한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도 있다. 순수한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는 이들은 문희진 문형선, 양나희, 윤해옥의 말 그림을 오래도록 바라볼 것을 권한다. 말은 단순히 동물이 아닌 환상 여행의 동반자라는 사실로 다가온다.

한편 김해성 작가는 "이번 작품전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작가들이 그린 말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라며 "말의 이미지가 건네는 긍정적이며 동화적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근재 작



윤해옥 작

## 목포시향, 클래식으로 새해 첫 페이지 펼친다 29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동화적인 서곡에서 시작해 낭만의 정점까지. 병오년이 시작을 알리는 무대가 목포에서 펼쳐진다.

목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제138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제7대 상임지휘자 전희범의 취임 연주회로 목포시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이번 연주회는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목포시향은 서사적 구성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전희범 지휘자가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성과 해석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공연의 문은 오텔베르트 뢰퍼링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서곡으로 열린다. 동화적 서정과 독일 낭만주의의 풍성한 관현악이 어우러진 이 곡은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시작을 알린다. 친숙한 선율 속에서도 오케스트라의 색채와 호흡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단조]'가 연주된다. 협연자로는 섬세한 터치와 깊은 해석으로 주목받아온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무대에 오른다. 시적 감수성과 화려한 기교가 공존하는 작품으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주고받는 서정적 대화와 관객의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의 대미는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전경.

〈목포시 제공〉

로부터'. 폭넓은 선율과 극적인 전개로 사랑받는 이 작품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설렘과 향수를 동시에 담아낸 교향곡이다. 취임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하며 변화와 도약의 메시지를 힘 있게 전한다.

전희범 상임지휘자는 "새해 첫 무대에서 시민 여러

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목포시향이 더 큰 감동과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3000원·일반 5000원, 티켓링크 예매(1월 5일부터).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월호

연남



## ‘YONO’ 새해엔 해피 미니멀 라이프 ‘우주로 향한 남도, 고흥이 연 하늘길’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신년호(통권 363호)가 발간됐다. 이번 1월호는 신년 특집 '새해엔 해피 미니멀 라이프'를 중심으로 덜어내되 가볍고 단단해지는 삶의 태도를 문화-예술적 시선으로 풀어냈다.

특집에서는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삶의 밀도를 조절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의 목소리로 조명한다. 소비 트렌드 변화인 'YOLO(You Only Live Once)'에서 'YONO(You Only Need One)'로의 전환, 정리수납 전문가의 현실적인 조언, 공간·생활·디지털 영역까지 확장된 미니멀 전략을 소개하며 새해를 맞는 독자들에게 실천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예술·문화 현장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기획을 담았다. 북합문화공간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북합문화공간, 도시의 미래가 되다'에서는 진정성 있는 무대와 작품으로 오페라에 대한 저변 확대에 나선 대구 오페라하우스를 소개한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국내 유일의 오페라 전용 제작극장으로 2003년 개관 이후 창·제작 중심의 운영을 통해 한국 오페라 문화의 저변 확대를 이끌어온 공간이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주무대로 활용되며 매년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과 자체 기획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남도 체험로드' 광양 편에서는 숲과 빛,

장인의 손길, 미술관과 문화공간을 따라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예술과 여행, 여가에 생활을 잇는 '예향'만의 감성적인 시선이 돋보이는 구성이다. 표지는 광양에 위치한 전남도립미술관 소장품인 장 미셀 오토니엘의 작품 '블랙 토네이도'로 장식됐다.

대규모 회고전과 공연 소식을 전하는 전사·문화 화제, 예술가 인터뷰 코너 등도 풍성하게 구성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승운-풍수의 색, 생명의 선율'전을 지면으로 감상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올해로 세상을 떠난 지 20주년을 맞은 고 오승운 화백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대규모 회고전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전남도립미술관, 개인 소장가들의 컬렉션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옛 교도소를 문화적 상상력으로 리모델링한 '장흥 뽀빠용 Zip'을 공간의 재발견 코너에서 상세히 들여다보고 여행과 함께 하는 남도투어 시즌3는 '우주로 향한 남도, 고흥이 연 하늘길'로 시작한다.

이외에 프랑스에 '한국의 봄'을 전하고 전라도를 '프랑스 감성'에 물들인 광주 출신 거문고 연주자 이정주씨의 한국문화 사랑과, 해외 무대를 거쳐 다시 광주에 선 한국 대표 발레리노 윤전일의 춤 이야기도 들어본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책과 체험... 겨울방학엔 도서관으로

남구 구립도서관 4곳 독서교실

겨울방학을 맞아 광주 남구 구립도서관들이 아이들을 위한 작은 배움의 공간으로 문을 연다. 책과 체험이 어우러진 독서교실에서 아이들은 방학 동안 천천히 읽고, 즐겁게 배우는 시간을 만나게 된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번 겨울 독서교실은 푸른길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 효천어울림도서관, 문화정보도서관 등 관내 구립도서관 4곳에서 각각 진행된다. 프로그램별로 대상 학년과 주제가 달라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푸른길도서관에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지혜 역사 탐험대'를 운영한다. 세종대왕과 신사임당, 퇴계 이황·율곡 이이 등 지혜 속 인물과 오죽헌, 다보탑 등 다양한 상징을 통해 역사와 과학 이야기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거북선 저금통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참가자는 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청소년도서관은 '도서관 경제 마법 학교'를 주제로 14일부터 16일까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만화의 지갑을 만들고 시장놀이를 통해 판매 전략과 경제 원리를 배우게 된다. 제인 세인트 클레어 '돈이 된 데?', 루이스 암스트롱 '레몬으로 돈 버는 법' 등 주제 도서를 바탕으로 경제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6일부터 선착순 모집).

효천어울림도서관에서는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캐데원 속 우리 전통문화



광주 효천어울림도서관에서 이용객들이 독서 등을 하는 모습. 〈광주 남구 제공〉

이야기'를 선보인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대문 헌터스'에 등장하는 음식과 민화, 궁궐 등 전통문화를 현대적 시선으로 풀어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모집은 9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문화정보도서관은 초등학교 2~3학년을 위한 '사이언스 2026, 과학 탐구 여행'을 마련했다. 인형극과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과학 주제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다. 참가자는 12일부터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접수 방법과 세부 내용은 남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가비 무료(재료비 별도).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